

동지에서 맞수로 ... 파란만장 '양김시대' 역사 속으로

영원한 라이벌 DJ-YJ

김영삼(YJ) 전 대통령이 22일 영면하면서 6년전 타계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이끌어왔던 '양김(兩金) 시대'도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됐다. 두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에서는 손을 맞잡은 '동지'였지만, 집권을 두고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영원한 '맞수'였다.

두 사람은 성장 과정부터 달랐다. DJ가 신안의 외딴섬 하의도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갖은 역경과 고난을 노력과 집념으로 극복한 자수성가형 정치인이었던 반면 YJ는 경남 거제 지역 유자의 아들로 태어나 27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정계에 공식 입문했다.

출신 지역과 정치적 배경은 판이했지만 두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르는 군사정권 하에서 한국 야당사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며 중대한 정치적 고비 때마다 협력과 경쟁을 이어갔다.

특히 1968년 신민당 원내총무 경선을 시작으로 70년 대선후보 경선, 87년 대선, 92년 대선은 두 사람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앞서거나 뒤처거나 진검승부를 펼쳤던 역사의 변곡점이었다.

지난 1985년, DJ와 YJ가 공동의장을 맡아 결성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는 12대 총선에서 야당의 명맥을 복원하고 직선제 개헌 운동과 87년 6월 민주항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87년 대선 때 야권 후보 단일화의 길목에서 끝내 갈라지면서 민정당 정권의 재창출, 군사정부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민주정부로의 정권 교체를 갈구했던 야권 진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훗날 DJ는 자서전에서 "나라도 양보를 했어야 했다. 너무도 후회스럽다"고 자책했으며 YJ도 언론 인터뷰에서 "천추의 한이 됐다. 국민한테도 미안하고"라며 통탄했다.

1968년 野 원내총무 경선
1982년 민주협 공동의장으로
민주화 운동 이끌어
1987년 단일화 실패로 갈라서
1992년 대선까지 진검승부

87년 이후 양김의 길은 협력보다 경쟁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YJ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자신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이 3당으로 전락하자 1990년 1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김종필(JP) 총재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결행했다. 이후 YJ는 집권당이던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을 거쳐,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1992년 대선에서 DJ와 숙명의 대결을 벌여 먼저 대권을 거머쥐었다.

대선에서 YJ에 패한 DJ는 정계에서 퇴를 선언한 뒤 영국으로 떠났다. 귀국,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며 제1야당 대표로 정계에 복귀했고, 1997년 대선에서 4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양김은 87년 대선의 길목에서 등을 돌린 뒤 지난 2009년 DJ가 먼저 눈을 감기까지 22년간 반목의 세월을 보냈다. DJ는 3당 합당 이후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YJ를 맹렬히 공격했고, YJ도 퇴임 이후 DJ를 독재자, 배신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노벨상 수상까지 꺾어내리기도 했다. 또 YJ는 보수세력, DJ는 진보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는 DJ가 서거하던 2009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YJ가 그 해 8월 위중한 상태의 DJ를 문병한 뒤, "이제 화해한 것으로 봐도 좋다. 그럴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극적 화해가 이뤄졌다. '후광(後廣) 김대중과 '거산(巨山) 김영삼, 두 '거목(巨木)'이 역사의 뒤안길로 스러져가면서 한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J-YJ 손잡고 6월항쟁 '승리의 행진'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6년 전 타계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민주화를 이끈 양대산맥이었다. 사진은 1987년 7월, '6월 항쟁'의 승리로 석방직후 행진하고 있는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우리 모두 상주” 집결하는 상도동계

최형우·김덕룡·김무성·서청원 등
상례절차 논의하고 조문객 맞아

김영삼(金泳三·YJ)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22일 오전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김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상도동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달려왔다.

이들은 “우리 모두 상주”라며 상주를 자처하고 나서 차남인 김현철씨와 함께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조문객들을 맞았다.

상도동계의 대표적 인물은 김 전 대통령의 좌(左) 최형우, 우(右) 김동영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은 동국대 동문으로 김 대통령과 동고동락을 같이하며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평생을 바쳤다. 김동영 전 의원은 그러나 ‘김영삼 정부’ 탄생을 2년 앞둔 지난 91년 암으로 타계했다.

상도동계의 또 다른 대표인사는 국회의장을 역임한 김수환 박관용 전 의장이다. 특히 박관용 전 의장의 경우 김영삼 정부 초대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가신 그룹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김덕룡 전 의원, 총무처장관을 지낸 5선의 서석재 전 의원, 김수환 전 국회의장, YJ의 영원한 대변인 박종용 전 의원, 이원중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 등도 상도동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현재 정치권에 남아있는 상도동계 인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8시반께 제일 먼저 빈소를 찾았다. 김 대표는 YJ가 창당한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을 거쳐 YJ의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

냈으며 YJ의 민주화 업적이 담긴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의 회장(2005년)과 동지회 공동대표(2001년)를 지냈다.

김 대표는 YJ의 영정사진 앞에서 흐느끼며 두 번 절을 올린 뒤 곁에서 있던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를 묵직하게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최형우 전 내무장관은 이날 YJ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오열하며 고인을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최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주변의 부축으로 가까스로 울음을 삼키면서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YJ의 빈소에 이어지는 복도를 힘겹게 걸어들어왔다.

빈소에 들어온 최 장관은 빈소에 놓인 YJ의 영정사진을 보고 끝내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이구...”

를 반복하며 흐느끼고 울었다. 최 장관은 1996년 총선에서 6선 고지를 밟으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해 1997년 여당의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당시 이회창 고문과 힘겨투기를 하다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졌고 지금까지 정치 일선에 물러선 상태다.

YJ의 야당 총재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문민정부에서 정무장관을 지낸 핵심측근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전 8시40분께 빈소를 찾았다. 서 최고위원은 “김영삼(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저의 정치적 대부”라면서 “과거에 제가 모시고 민주화 운동을 같이했다. 대한민국의 큰 별이 가셨다. 애통스럽다”고 슬픈 마음을 전했다.

김영삼대통령 기념사업회장인 김수환 전 국회의장도 아침 일찍 빈소로 찾아 김 대표, 서 최고위원과 함께 김종필 전 총리의 조문을 받았다.

한편, 상도동계의 몇몇 인사들이 이미 지난달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장지를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김’ 김종필, 휠체어 타고 빈소 찾아 애도

한국 현대 정치사를 상징하는 ‘3김(金)’의 한 명인 김종필 전 총리는 22일 서거한 ‘정적이자 동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8시50분 서울대병원 빈소를 휠체어를 탄 채 찾아 국화 한 송이를 들고 10초 정도 눈을 감고 묵념을 올렸다. 김 전 대통령의 집권에 타대를 놓은 지난 1990년 1월 ‘3당 합당’ 파트너였던 김 전 총리는 빈소에서 한 시간가량 머물렀다.

김 전 총리는 조문을 마친 후 내빈실에서 영육의 과거를 함께 한 인물들과 김 전 대

통령을 추억했다. 김 전 총리는 현철 씨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잊지 않는 게 ‘닭의 목을 비벼도 새벽은 온다’였다”면서 “당신의 신념대로 움직이는데 어떤 것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못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그대 생각이 난다”고 회고했다.

김 전 총리는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던 충신은 어디 갔느냐”면서 퇴임 후 출근 보좌했던 김기수 전 비서관을 만나서는 잠았던 울음을 끝내 터뜨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